

↑ 코스피 2794.01 (+13.15)	↑ 코스닥 836.10 (+6.19)
↓ 금리 (미국 9년) 3.160 (-0.009)	↑ 환율 (원·달러) 1390.60 (+2.40)



올 성장률 2.6% 전망... 尹 “소상공인 25조 맞춤형 지원”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출 회복에 성장률 예측치 상향
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 고수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 여전히 커
하반기 취약부문 정책대응 강화
지속가능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6%로, 종전 대비 0.4%포인트(p) 올려 잡았다. 수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진단에 따른 상향조정이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의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의 둔화 흐름을 점진 가운데 국제유가 향방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국내총생산(GDP)·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담았다.

올해 GDP 성장률과 관련해 2.5% 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2.6% 성장을 전망한다”며 기존에 제시한 2.2% 예측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

8.5%에서 9.0%로 끌어올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상반기 상방압력과 달리, 하반기에는 공급 측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며 2% 초·중반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인 3% 미만(2.6%)을 그대로 봤다. 이어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및 기상여건 등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용 부문과 관련해서는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3만 명 늘어날 것이라 예측을 고수했다. 지난해 32만 7000명 증가에 못 미친다.

정부는 오는 2025년도 성장률은 2.2%, 물가상승은 2.1%, 취업자 수는 17만 명 증가를 예상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애로 수렴에 기반해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 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정책방향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및 경영부담 완화

정책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비롯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핵심경제정책 과제를 함께 제시해 왔다.

역동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약화하는 구조적 원인 개선에 방점을 뒀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자는 것으로, 성장과 사회이동성 간 선순환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개선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등이 로드맵에 포함됐다.

로드맵에 제시된 3대 분야 10대 과제는 ▲혁신 생태계 강화(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및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네트워크 확장) ▲공정한 기회보장(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사회이동성 개선(가계소득 및 자산확충, 핵심생계비 경감, 교육시스템 혁신, 약자보호, 재기지원 강화)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시세로도 다 팔리네 고분양가 논란에도 수도권 청약 우르르

고분양가 논란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청약 경쟁률에 잠잠해졌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난 부동산 분위기가 청약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됐고, 상급지나 역세권 신축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뜨겁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대장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도 시장에서 무난히 받아주는 것이 확인된 이상 향후 분양 예정 단지들이 분양가를 올려잡는 것은 물론 주변 시세까지 끌어 올릴 수 있어서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이하 마자힐)는 일반분양 250가구를 모집하는데 4만988명이 신청하면서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평균 경쟁률은 163대 1이다.

전용면적 59㎡A 타입의 경쟁률이 236대 1로 가장 높았고, 59㎡B와 84㎡A, 84㎡D, 114㎡A, 114㎡B 모두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 역시 경쟁률이 58대 1에 달했다. 213가구 모집에 총 1만2535명이 신청했다.

마자힐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5150만원으로 강북에서는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전용 84㎡ 기준 16억4000만~17억4000만원 선이다. 당초 강북 최고 분양가에 경쟁률이 저조할 것이라 일부 예상과 달리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경기도 성남시에 들어서는 ‘산성역 헤리스톤(이하 헤리스톤)’ 역시 전 주택형이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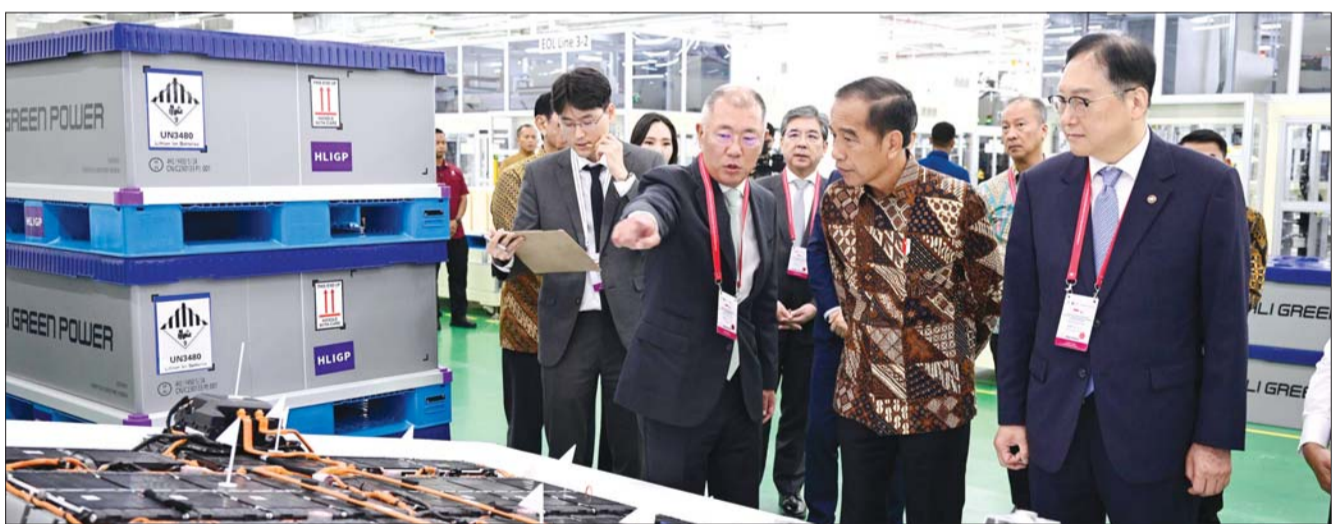
청약홈에 따르면 헤리스톤은 620가구 모집에 1만8952명이 신청해 평균 3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헤리스톤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3500만원이다. 중층 기준 전용 46㎡이 약 6억3000만원, 59㎡ 약 9억원 등이다. 저층만 남은 74㎡와 84㎡는 각각 10억원, 11억원 선이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시세와 비슷했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604세대 배정에 7118건이 접수돼 평균 1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59㎡A 생애최초 유형에는 2935건의 청약이 들어왔다. /안성미 기자 smahn1@

현대차그룹, 인니서 배터리-전기차 원스톱 생산체제 구축

인도네시아 EV생태계 완성 기념식
LG엔솔 합작공장서 배터리셀 생산
‘코나 일렉트릭’에 장착·양산 시작
정의선 “동남아 고객에 새기준 제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3일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EV 생태계 완성 기념식에 참석해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HLI그린파워에서 생산한 배터리셀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셀-전기차로 이어지는 현지 전기차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뉴시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셀-전기차로 이어지는 생산 체제 구축을 통해 인구 7억명의 아세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그룹은 3일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한 배터리셀 공장 ‘HLI그린파워’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인도네시아 EV 생태계 완성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대차 인도네시아공장은 HLI그린파워에서 생산한 배터리셀을 장착해 ‘디올 뉴 코나 일렉트릭’ 양산을 시작한다.

정의선 회장은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의 완공과 코나 일렉트릭 양산은 현대차그룹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이룬 협력의 결실이며, 우리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동시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생태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차량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잠재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는 동남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나 일렉트릭은 아이오닉 5에 이어 현대차 인도네시아공장에서 생산하는

두번째 전기차 모델이다.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을 탑재해, 가격이 기존 전기차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HLI그린파워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을 배터리 모듈과 팩에 직접 조립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디올 뉴 코나 일렉트릭 1호차에 서명해 의미를 더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9

년 울산공장에서 열린 인도네시아공장 투자협약식에서도 코나 일렉트릭에 기념 서명을 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약 2억 8000만명)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핵심 국가다.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나경원, 민주 ‘윤 탄핵 청문회’ 언급에 “채상병 특검도 윤 무너뜨리기” /사진 뉴시스
▲ 정부, ‘0월0일 → N번째 월요일’ 휴일 지정 검토

▲ 이재명수사 검사 탄핵... 기각 가능성 높아
▲ 경영계, 내일 최저임금위 8차회의 불참



▲ 국힘, 채상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무산 /사진 뉴시스
▲ 韓, 안보리 의장국으로 회의 44회 개최... 8개 결의 채택